

보도 일시	2022. 9. 19.(월) 09:00	배포 일시	2022. 9. 19.(월)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책임자	과장 배양희 (044-203-2751)
		담당자	사무관 이소진 (044-203-2749)

제3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지하철 환풍구를 활용한 도심 속 무더위 쉼터’ 대상 수상 - 수상작 23건 선정, 10. 21.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시상식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과 함께 ‘제3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대상작 ‘지하철 환풍구를 활용한 도심 속 무더위 쉼터’를 비롯해 총 수상작 23건을 선정했다.

2020년부터 시행한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들이 직접 일상 속 불편 요소를 찾아 공공디자인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공디자인의 가치와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무한 상상, ○○디자인’이라는 표어 아래, 공공디자인 외에 공공캠페인 분야를 신설했다. 참가 자격도 일반부 부문 외에 학생부 부문을 추가해 더욱 폭넓은 국민 참여를 유도했다.

공공시설의 인식 개선, 지하철 환풍구가 시민들의 무더위를 식혀줄 쉼터로 변신

대상(문체부 장관상)으로 선정된 ‘지하철 환풍구를 활용한 도심 속 무더위 쉼터(수상자 박성민, 조재민)’는 정화기술을 활용해 지하철 환풍구의 불쾌한 공기를 시원한 바람으로 바꿔 도시 온도를 낮추고 환풍구 주변 공간을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공공시설이 공공디자인을 통해 양성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고, 도시 생활환경 개선과 사용자 편의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형 공공시설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디지털 기술 활용,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 돋보여

일반부 최우수상에 선정된 ‘오해에서 이해로, 오이 프로젝트(수상자 한규원, 이신애)’는 빅데이터와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농촌의 빈집과 귀농·귀촌인을 맞춤형으로 연결해주고, 지역문화 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우수상에는 ▲ ‘제품 위치 추적기 <아이 캔(I CAN)>(수상자 조세연, 황경주)’, ▲ ‘폐지수거를 위한 종이역 디자인(수상자 강현석, 손준성)’ 총 2건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 ‘도시가스 배관 디자인을 통한 도시미관 조성(수상자 박태희)’ 등 총 3건이, 입선은 ▲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지 제품 점자 표시(수상자 권종원)’ 등 총 5건이 받는다.

학생의 시선으로 불편 사항 발견하고 공공디자인으로 해결방안 구체화

올해 신설된 학생부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그들만의 시각으로 찾아낸 문제점과 신선한 해결방안을 보여주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 ‘누구나 당겨 마시는 위생 음수대(수상자 오민규)’는 어린이, 노약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야외 음수대를 제안했다. 우수상은 ▲ ‘시각장애인을 위한 열차 점자 안내판 디자인(수상자 김수빈)’, ▲ ‘미세먼지 청정공간 <도시녹지 놀이터>(수상자 이혼지, 정예림)’ 총 2건이 받는다. 장려상에는 ▲ ‘대피용 물수건 안내(수상자 황성진, 김상우, 김이언, 장지훈, 한지유)’ 등 총 3건이, 입선에는 ▲ ‘노약자를 위한 횡단 보도 모빌리티(수상자 최영욱)’ 등 총 5건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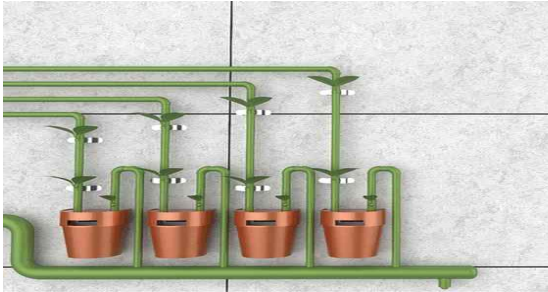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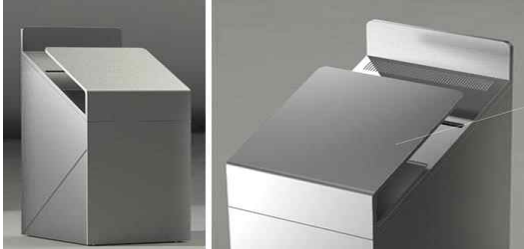
선정된 아이디어는 활용방안 연구를 거쳐 실현 가능성에 따라 현장에 적용될 수 있으며, 9월 30일(금)부터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publicdesign.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2022 공공디자인 페스티벌(10. 5.~30.)’ 기간 중 10월 21일(금),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열린다.

- 붙임 1. ‘제3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안내
2. ‘제3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공모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대상 (1)	아이디어명	지하철 환풍구를 활용한 도심 속 무더위 쉼터
	수상자	박성민, 조재민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쾌한 공기 배출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가로 환경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을 지닌 지하철 환풍구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바꾸는 아이디어다. - 환풍구의 특징인 바람이라는 요소를 활용하여 공기 정화 필터로 불쾌한 공기를 청정하게 배출하고, 외부 환풍구에 조경과 벤치 등 새로운 시설을 더해 시민들에게 시원한 쉼터를 제공한다.
	주요 이미지	




구분	주요 내용	
(일반부) 최우수상 (1)	아이디어명	오해에서 이해로, 오이프로젝트(농촌 빈집 연결 서비스)
	수상자	한규원, 이신애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이프로젝트는 도시 이주민과 농촌 원주민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개인별 맞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서비스다. - 귀농·귀촌인에게 농촌 빈집을 연결해주고,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지역문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오해를 풀어내고자 한다. 본 서비스는 도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수도권 집중형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주요 이미지		

구분	주요 내용	
(일반부) 우수상 (2)	아이디어명	제품 위치 추적기 '아이 캔(I CAN)'
	수상자	조세연, 황경주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사물의 위치를 몰라 물건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시각장애이거나 저시력자가 쉽게 사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위치 추적기이다. - 초음파센서를 통해 주변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여 점자와 음성으로 안내해주며, 사용자가 기기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을 등록하면 필요할 때마다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휴대성을 위해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에 신경 썼다.
주요 이미지		
아이디어명	폐지수거를 위한 종이역 디자인	
수상자	강현석, 손준성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수거한 폐지 무게를 측정한 후, 현금이나 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는 무인 폐지 수거함이다. -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중점으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며, 수거함 주변에 손수레 거치대를 설치함으로써 폐지를 줍고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손수레를 쉽게 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폐지량이 적어 정산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기부도 할 수 있어 캠페인성 활동을 유도한다. 	
주요 이미지		

구분	주요 내용	
(일반부) 장려상 (3)	아이디어명	도시가스 배관 디자인을 통한 도시미관 조성
	수상자	박태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미관을 해치는 도시가스 배관을 식물이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형태로 디자인함으로써 골목길 분위기를 환하게 만드는 아이디어다. - 배관 색상, 계량기 커버, 나뭇잎 고정장치 등 어렵지 않은 기술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바로 실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했다.
	주요 이미지	 
아이디어명	한강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는 무한 상상 '모아(MOA)'디자인	
수상자	김지영, 전재연, 윤나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2배 이상 증가한 한강의 쓰레기 배출량을 해결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이다. 한강 공원의 실시간 혼잡도와 쓰레기 배출법을 안내하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챌린지를 제공한다 - MZ세대의 친환경·윤리적 소비 트렌드와 기업의 ESG 경영에 주목하여 시민, 기업, 서울시가 함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했다. 	
주요 이미지		
아이디어명	담배꽂초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주는 공용 재떨이 디자인 '밀리미'	
수상자	정석주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럼틀 구조를 적용하여 담배꽂초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공용 재떨이다. - 기존의 공용 재떨이는 투입구가 좁아 담배꽂초와 쓰레기가 쌓여 미관상 좋지 않았고, 덜 꺼진 담배꽂초로 인해 화재 위험이 컸다. 부피에 따라 쓰레기가 분리되는 '밀리미'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장소의 미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 	
주요 이미지	 	

구분	주요 내용	
	아이디어명	시각 장애인을 위한 봉지 제품 점자 표시
	수상자	권중원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품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봉지 제품 하단 밀봉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삽입하는 방안이다. 봉지의 요철부가 점자의 양각부를 대체하고 음각부만 추가하여 점자를 삽입하도록 한 아이디어다.
	주요 이미지	
(일반부) 입선 (5)	아이디어명	한숨 자리: 어디에나 깔린 모두를 위한 작은 휴식
	수상자	임화선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거리를 지나는 사람 누구든 잠시 쉴 수 있도록 마련된 '한숨자리'는 모두가 이용하는 보행 도로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공공시설물이다. - 본 아이디어는 시민들이 필요한 공유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지역, 영역, 공간에 따라 형태, 배치, 재료를 다르게 적용하여 도시 경관을 향상하고 거리의 특색을 부여한다.
	주요 이미지	

구분	주요 내용	
(일반부) 입선 (5)	아이디어명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장애인 사용카드 디자인
	수상자	김화중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카드, 바우처 카드 등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카드 측면에 음푹 팬 홈을 만들어 다른 일반 카드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다. - 기존 장애인 복지카드의 재질과 디자인은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해 시각장애인에게 혼동을 준다. 카드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홈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다.
주요 이미지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제안내용</p> <p>홈 모양 [둥근 홈, 각진 홈, 세모 홈, 톱니바퀴 홈]</p> <p>카드 종류별 구분</p>  </div>	
(일반부) 입선 (5)	아이디어명	청결한 거리를 위한 공공 쓰레기통 디자인
	수상자	고든솔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통과 가로 화분이 결합한 '청결한 거리를 위한 공공 쓰레기통 디자인'은 기존 공공 쓰레기통의 불편한 이미지를 바꿔 청결한 거리를 조성하는 아이디어다. -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색상,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쓰레기통을 만들어 심미성과 편리성을 추구했다. 꽃과 식물은 가로 화분에 적합하고 유지 보수가 쉬운 것을 심도록 한다.
주요 이미지		

구분		주요 내용
(일반부) 입선 (5)	아이디어명	이거 강남 가는 방향 맞아요?
	수상자	임창준, 이진영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차량 방향을 기호로도 표현하여 노선에 관한 지식이 없더라도 가고자 하는 방향을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인 시스템 디자인이다. - 노선 방향을 표기할 때, 종착역 이름과 함께 정해진 기호를 사용하면 일반 승객은 물론 한글을 모르는 어린이와 외국인, 저시력자와 교통약자도 대중교통의 노선 방향을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다.
	주요 이미지	  

구분		주요 내용
(학생부) 최우수상 (1)	아이디어명	누구나 당겨 마시는 위생 음수대
	수상자	오민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이 나오는 노즐의 높이가 조절되어 어린이, 성인, 휠체어 이용자 등 신체 조건이 다른 누구나 편리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야외 음수대다. - 사용하지 않을 때는 노즐이 음수대 내부에 들어가 있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자외선램프로 살균되어 청결도를 높였다. 사선으로 긴 몸체와 둥근 하단부는 낮시간 동안 해시계로 사용되어 상징적인 조형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주요 이미지	  

구분	주요 내용	
(학생부) 우수상 (2)	아이디어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열차 점자 안내판 디자인
	수상자	김수빈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의 현재 위치를 점자 안내판으로도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열차 운행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다. - 본 안내판은 스크린도어에 부착되며, 하단 센서가 사람을 인식하면 열차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한다. 실리콘 재질의 흰색 버튼은 지하철을 의미하며 전광판의 열차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
	주요 이미지	
	아이디어명	미세먼지 청정공간 '도시녹지 놀이터'
	수상자	이흔지, 정예림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청정공간 '도시녹지 놀이터'는 아이들의 건강과 창의성 발달을 돕는 유연한 공간이다. - 지속 가능한 공간을 추구하는 도시녹지 놀이터는 부지 내 나무를 통해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자연채광 및 환기, 열 손실 감소 등 인위적인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다. 또한, 자연 친화적 체험이 가능하여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요 이미지		

구분	주요 내용	
(학생부) 장려상 (3)	아이디어명	대피용 물수건 안내
	수상자	황성진, 김상우, 김이언, 장지훈, 한지유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자세로 비상유도등을 찾아 대피한다'라는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에서 착안하여 비상유도등에 생존을 위한 화재 대피용 물수건을 배치한 아이디어다. - 비상유도등의 개폐 방식을 미단이로 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피용 물수건을 구한 후에도 비상구 안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주요 이미지	
	아이디어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내 버튼 점자 캡 디자인
	수상자	류예림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인식을 쉽게 할 수 있게 점자를 크게 제작한 반투명의 캡이다. 기존 승강기 점자 버튼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 등 온도가 내려가 손끝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인식할 수 있다. 투명한 고밀도 폴리우레탄으로 제작하여 버튼이 비치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버튼 사용에도 지장이 없다.
	주요 이미지	
	아이디어명	선형 시야 확보 및 중앙선 침범을 예방하는 표지병 디자인
수상자	장재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선 침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존 표지병을 개선한 아이디어다. - 본 표지병의 반사판에 의해 반사된 빛을 통해 어두운 밤이나 우천 시에도 차선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바퀴를 우측으로 틀어지게 하는 형태는 중앙선 침범을 예방한다. 	
주요 이미지		

구분	주요 내용	
(학생부) 입선 (5)	아이디어명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모빌리티
	수상자	최영욱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약자들이 제한 시간 내에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율주행용 모빌리티다. - 횡단보도 양 끝에 설치되는 본 모빌리티는 손잡이가 있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으며, 좌우측 LED 등과 하단 경고등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모빌리티 운행을 알려준다. 2인용 크기로 휠체어 이용자도 탑승할 수 있다.
	주요 이미지	
	아이디어명	편의보도
수상자	장소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 인구가 적은 도로에서 보행자 편의에 따라 횡단보도를 생성할 수 있는 편의 보도이다. 기기의 버튼을 누르면 도로에 조명을 이용한 횡단보도가 생성된다. - 사람이 적고 차량 유입이 많은 도로에서 신호로 인한 교통 체증을 방지하여 융통성 있는 차량 이동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주요 이미지		

구분	주요 내용	
(학생부) 입선 (5)	아이디어명	노거수 인지와 보호를 위한 공공시설물디자인
	수상자	도연정, 조성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 문화적 가치가 높은 노거수를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심 주택가', '도심 공원', '도시 외곽마을'로 분류한 후, 주변 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시민들이 노거수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고안한 아이디어다. - 노거수를 문화재처럼 여겨 지나치게 보호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행정적 보호를 하는 동시에 시민들도 노거수 주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보호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이미지	 <p style="text-align: center;"> 나무 뿌리 벤치 도심주택가 설치 노거수 둘레길 도심공원 설치 '금줄과 한지' 평상 도시 외곽마을 설치 </p>
	아이디어명	제주 범죄예방 디자인, 정류장과 드론
	수상자	최준영, 김호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상징적인 모티브를 통해 제주의 특색을 담아내며 바람, 해풍 등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버스정류장이다. - 제주도의 범죄율을 낮추고 안전한 거주 및 관광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셉티드(CPTED) 디자인으로, 버스정류장과 드론, 드론 충전 및 대기를 위한 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오래된 버스정류장을 정비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여행객과 주민들의 야간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주요 이미지	
	아이디어명	미래 교통수단을 위한 모두의 정거장 : 610 디자인
수상자	손수민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거장 610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이착륙, 충전, 정비, 탑승, 환승을 할 수 있는 도심 항공 교통 정거장이다. 이 밖에도 사람들이 여가, 커뮤니티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복합문화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다. - 다가오는 2025년, 도심 항공 교통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기술의 발전과 도시 환경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아이디어다. 	
주요 이미지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 - 지하차도 차량용선 - 도심항공교통용선 - 지상이동차용선 - 보행교이동차용선 - 지상시행용선 - 무轨이동용선 - 정거장이동용선 </p>	

□ **공모 개요**

- 공모 표어(슬로건) : 무한 상상, OO디자인
- 아이디어 제안 분야
 - 1) 공공디자인 분야
 - 공공디자인을 통해 일상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 2) 공공캠페인 분야('22년 신설)
 -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
- 참가 자격 :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국민(개인 또는 5인 이하 팀/출품 건수 제한 없음)
 - 참가 부문 : 일반부, 학생부('22년 신설)
- 공모 접수 : 2022. 6. 17.(금)~6. 30.(목),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시상 내역 : 총 23점, 총 상금 5,400만 원

상명	시상 내역	상점		계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금 1,000만 원	1점		1점
최우수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상, 상금 500만 원	학생부	일반부	2점
		1점	1점	
우수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상, 상금 300만 원	학생부	일반부	4점
		2점	2점	
장려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 상금 200만 원	학생부	일반부	6점
		3점	3점	
입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 상금 100만 원	학생부	일반부	10점
		5점	5점	

□ **결과발표 및 시상식**

- 결과 발표 및 시상식
 - 결과 발표 : 2022. 9. 19.(월) 예정 * 누리집 공고 및 수상자 개별 연락
 - 시상식 개최 : 2022. 10. 21.(금), 문화역서울 284 RTO 예정
 - ※상기 일정은 감염병 확산 방지 관련 정부지침 및 발생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